

쓰
스
쓰
스

보면

다 이해되는

고등

화법과 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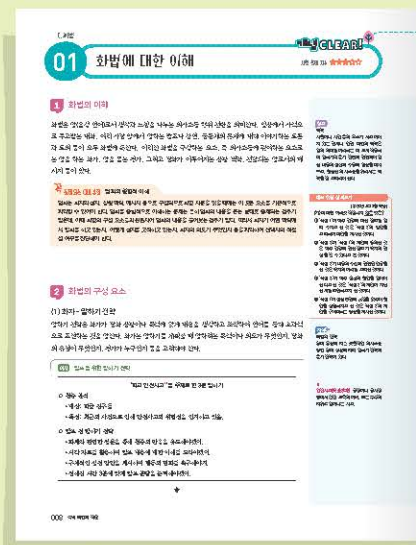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이 책의 구성

- STEP 1 **개념 CLEAR!** 자세한 설명을 통해 개념 clear하기
- STEP 2 **유형 CLEAR!**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유형 clear하기
- STEP 3 **시험 CLEAR!**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 시험 clear하기
- STEP 4 **실전 모의고사** 2022 수능 예시문항과 같은 구성의 예상 문제를 통해 1등급 완성하기

이 책의 특징



개념 CLEAR!

화법과 작문의 개념을 10개의 장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들과 대표 출제 유형을 알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한 설명과 풍부한 예를 통해 화법과 작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조단에 어휘 풀이, '참고', '지식+', '대표 유형 살펴보기' 등을 제시하여 화법과 작문의 개념을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례

I. 화법

학습일

01 화법에 대한 이해 008

_____ 일 _____ 일

- 1 화법의 이해
- 2 화법의 구성 요소

02 발표와 강연 023

_____ 일 _____ 일

- 1 발표, 강연 전 청중 분석
- 2 발표, 강연의 내용 구성
- 3 발표, 강연의 실행
- 4 발표, 강연에서 청중의 역할

03 토론 036

_____ 일 _____ 일

- 1 토론의 개념
- 2 토론의 논제와 쟁점
- 3 토론의 발언
- 4 토론 참여자의 역할

04 토의와 협상 050

_____ 일 _____ 일

- 1 토의
- 2 협상

05 대화와 면접 062

_____ 일 _____ 일

- 1 대화
- 2 면접

II. 작문

06 작문에 대한 이해 076

1 작문의 이해

2 작문의 특성

학습일

날 일 □

07 정보 전달을 위한 글 092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이해

2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과정

3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유형

날 일 □

08 설득을 위한 글 104

1 설득을 위한 글의 이해

2 설득을 위한 글의 유형

날 일 □

09 자아 성찰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 114

1 자아 성찰을 위한 글

2 정서 표현을 위한 글

날 일 □

III. 통합

10 화법과 작문의 통합 124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과 화법의 통합

2 설득을 위한 글과 화법의 통합

3 자아 성찰, 정서 표현을 위한 글과 화법의 통합

날 일 □

IV. 실전 모의고사

01회 142

날 일 □

02회 148

날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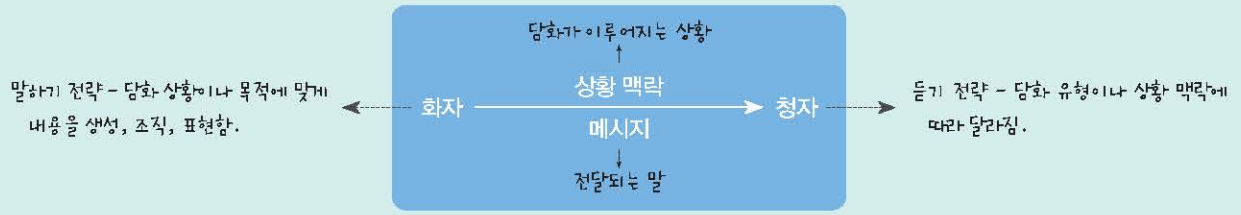
특별 부록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156

날 일 □

| 단원 미리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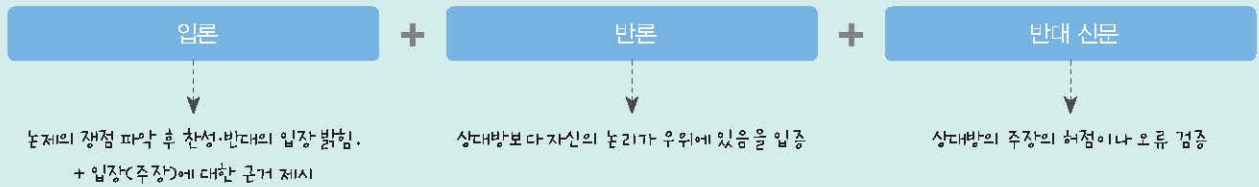
• 화법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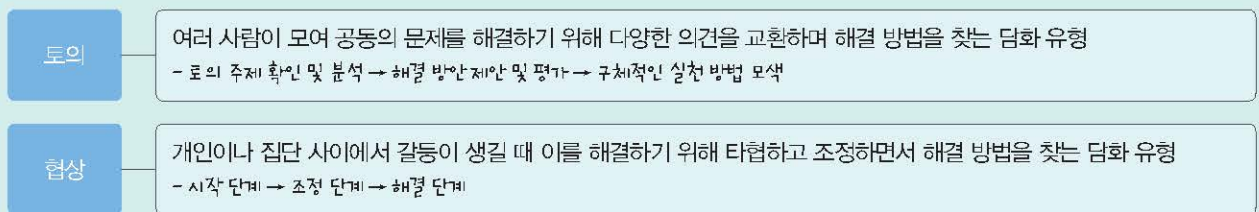
• 발표와 강연의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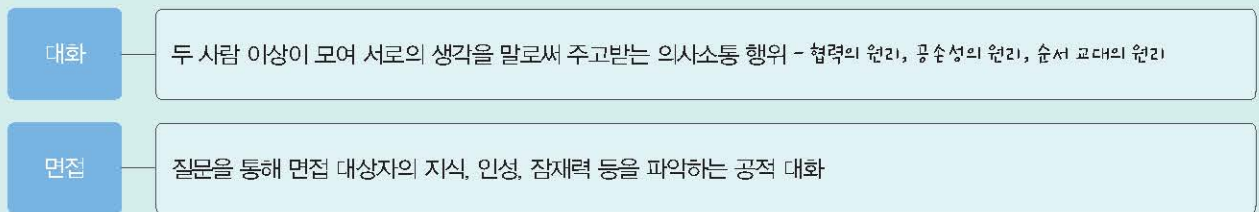
• 토론의 발언



• 토의와 협상



• 대화와 면접



I

화법



- 01 화법에 대한 이해
- 02 발표와 강연
- 03 토론
- 04 토의와 협상
- 05 대화와 면접

01

화법에 대한 이해

1 화법의 이해

화법은 말(음성 언어)으로써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발표나 강연,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과 토의 등이 모두 화법에 속한다. 이러한 화법을 구성하는 요소, 즉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말을 하는 화자, 말을 듣는 청자,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전달되는 말로서의 메시지 등이 있다.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 담화의 종합적 이해

담화는 화자와 청자, 상황 맥락,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므로 화법 지문을 읽을 때에는 이 모든 요소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담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는 흔히 담화의 내용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화법의 구성 요소들과 관련지어 담화의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자가 어떤 맥락에서 발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청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 맥락

사물이나 사건 등의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화법의 맥락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하며 말하기와 듣기 전반과 관련되어 말할 내용의 생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한다.

대표 유형 살펴보기

[2020년 고3 3월 학평]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이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 ② '학생 3'이 '학생 1'의 제안에 동의한 것은 척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③ '학생 2'가 내용의 수준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다.
- ④ '학생 3'이 척추 질환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학생 2'의 제안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 ⑤ '학생 1'이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설명하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지식+

화법의 전략

담화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담화 상황에 따라 말하기 전략과 듣기 전략이 있다.

● **안전사고(安全事故)**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 따위로 일어나는 사고.

2 화법의 구성 요소

(1) 화자 - 말하기 전략

말하기 전략은 화자가 담화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여 언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화자는 말하기를 계획할 때 말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담화의 유형이 무엇인지, 청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시 발표를 위한 말하기 전략

'학교 안전사고'를 주제로 한 3분 말하기

- 청중 분석
 - 대상: 학급 친구들
 - 특성: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
- 발표 전 말하기 전략
 -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유도해야겠어.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겠어.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행동의 변화를 촉구해야지.
 - 정해진 시간 3분에 맞게 발표 분량을 준비해야겠어.



위 대화에서 “선생님, 피곤해서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라는 학생의 말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화 자체만 보면 정보 전달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 말에는 시험 성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의 심리가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발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위 대화에서 ‘풀 죽은 목소리로’(준언어적 표현), ‘걱정스러운 눈길로’(비언어적 표현)는 뒤따르는 말들과 연관되어 메시지를 보완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적 메시지에 표정이나 행위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덧붙여 메시지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으며,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과 같은 준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담화 상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 **담화 참여자의 태도**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 교섭 과정이다. 따라서 담화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 속에서 담화 참여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의 태도를 파악할 때는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뿐 아니라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의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식+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말의 강약, 높낮이, 기락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
비언어적 표현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

대표 유형 살펴보기

[2020년 9월 모평]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
-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고,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스스삭
Paint

- 01 **화법:**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 전반
- 02 **말하기 전략:**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됨.
듣기 전략: 청자가 효율적으로 듣는 것과 관련됨.
- 03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함.





01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소영: 동아리 발표하느라 힘들었지? 정말 잘하던데.
 영미: 고마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소영: ㉠너의 발표를 듣고 친구들이 큰 박수를 치는 것을 보니 최선을 다해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
 영미: 그래? (한숨을 쉰다.)
 소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 있어?
 영미: 별일 아니야.
 소영: ㉢괜찮아. 말해 봐. 우린 친구잖아.
 영미: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언니에게 물었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야.
 소영: 그랬구나. ㉣언니가 건성으로 대답해서 속상했구나.
 영미: 그래. 언니에게 “설명을 대충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라고 말했더니, “얼마나 더 자세히 말해 줘야 하니?”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짜증이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어.
 소영: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 말에 짜증이 나서 방을 나와 버렸구나.
 영미: 응. 그런데 그러고 나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영: ㉥수업 시간에 공손성의 원리를 배웠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는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말해 보는 건 어때?

- (1) ㉠은 청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다.
- (2) ㉡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3) ㉢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의사소통을 이어 가려 하고 있다.
- (4) ㉣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5) ㉤은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6) ㉥은 상대방의 잘못된 의사소통 방법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

공감적 듣기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듣는 전략.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유형 분석

대화의 참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풀이 전략

각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려면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비언어적 표현·준언어적 표현의 사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01~02] 다음은 민수와 삼촌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4년 예비수능 A, B

민수: 삼촌, 진로에 대한 조언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삼촌을 찾아올 걸 그랬어요. 이메일로만 여쭙 보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 훨씬 좋은데요. ㉠궁금한 걸 바로
여쭙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

삼촌: 그래, 오늘 얘기 도움이 좀 됐니?

민수: 그렇죠. 지난번 대화에 다니는 선배에게 비슷한 얘길 들
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화가인 삼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

삼촌: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강바람이 참 좋구
나. 좀 더 걸을까?

민수: 네, 좋아요. 상쾌하고 마음도 후련해지네요. ㉢좀 전 북
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얘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 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요.

삼촌: 응, 그래. 그런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
기까지 걸어오곤 했지.

민수: ㉣회수권이요? 회수권이 뭐죠?

삼촌: 아, 너희 포랜 모르겠구나.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그때 그렇게 말했지.

민수: 아, 네. 그때 삼촌도 저처럼 진로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
던 거예요?

삼촌: 응, 그랬었지. 너처럼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갈등이 많
았지.

민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삼촌: 괜찮아.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민수: 사실 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데 이 문제로 요즘 좀 서
떡해졌어요. 자꾸 피하게 되고…….

삼촌: 응,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
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민수: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삼촌: 전혀 그렇지 않아. 삼촌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네 심정
잘 알아. 그런데 너처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민수: 글썄요.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긴 안 꺼내요.

삼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구나.

01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02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은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다. '삼촌'이 사용한 표현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활동 결과

- ㉠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일체감을 나타냄. ①
- ㉡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줌. ②
- ㉢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
“그러니까 네 말은 ~ 말이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 줌. ③
- ㉣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
“전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해 줌. ④
-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보임. ⑤

[01~03]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들어 보신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네요. 날개 없는 선풍기는 말 그대로 날개 없이 바람을 몇 배나 강하게 만드는 선풍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풍기는 어떻게 날개도 없는데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네, 저도 처음에 그 원리가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궁금해하실 것 같아 날개 없는 선풍기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날개 없는 선풍기의 모형은 (자료 1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간단한 구조라, 도대체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날개 없는 선풍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날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터와 함께 원기둥 모양의 스탠드에 숨어 있습니다. 스탠드의 안을 들여다 보면 비행기의 제트 엔진을 연상시키는 팬과 모터가 있습니다. 1학기 과학 시간에 배운 제트 엔진의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선생님께서 항공기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날개 없는 선풍기는 그 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탠드가 바깥 공기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탠드에서는 빨아들인 공기를 위쪽 둥근 고리의 내부로 밀어 올립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둥근 고리의 단면은 비행기 날개의 위아래를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이러한 고리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고리 내부로 밀려 올라간 공기는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 빠른 속력의 공기가 빈 고리 내부의 작은 틈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둥근 고리 안쪽 면의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고리 주변의 공기가 고리 안쪽으로 유도되면서 고리를 통과하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때 고리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모터를 통해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간 공기의 양보다 15배 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도 선풍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의 단면은 왜 비행기 날개 모양을 닮았을까요? (자료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는 윗면이 아랫면보다 볼록합니다. 공기가 비행기의 평평한 아랫면보다 볼록한 윗면을 지나갈 때 마치 좁은 관 속을 지나는 것처럼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데, 공기의 속도가 빠른 윗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평평한 아랫면의 기압은 높아지게 되죠. 따라

서 기압이 높은 아래쪽에서 기압이 낮은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의 단면 위쪽은 비행기 날개 아랫면처럼 평평하고, 아래쪽은 비행기 날개 윗면처럼 볼록한 모양입니다. 즉,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도 아래위의 기압 차를 이용하여 공기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작동하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날개 없는 선풍기는 크기가 작고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고리와 모터가 있는 부분이 분리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먼지가 쌓일 날개가 없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청소도 간편합니다. 또한 기존의 선풍기는 날개가 공기를 비스듬하게 쪼개면서 바람을 만들기 때문에 불규칙한 바람이 불게 되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는 균일한 바람을 불게 하여 바람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지금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1 다음은 학생이 위 발표를 계획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처음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기㉔
중간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㉕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기㉖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대상을 활용하여 발표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㉗
끝	○발표 대상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기존의 것과 비교하기㉘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01 화법에 대한 이해



● 본문 012-016쪽

01 말하기 방식 파악

(1) ○ (2) ○ (3) ○ (4) ○ (5) × (6) ×

- (1) “친구들이 큰 박수를 치는 것을 보니”라는 청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라며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다.
- (2) ‘걱정스러운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무슨 일 있어?”라며 한숨을 쉬는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3) “우린 친구잖아.”라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괜찮아. 말해 봐.”라며 의사소통을 이어 가려 하고 있다.
- (4) 앞선 상대방의 말(“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야.”)을 재진술하면서 공감함을 나타내고 “속상했구나.”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5)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고 있으며,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 (6)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잘못된 의사소통 방법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02 면담 참여자의 태도 이해

(1) × (2) × (3) × (4) ○ (5) × (6) ○ (7) ×

- (1) [A]에서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물음이 명확하지 않아 사서가 질문의 의도를 묻자 학생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 (2) [A]는 학생이 묻고 사서가 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서가 이를 확인하는 질문은 나타나 있지 않다.
- (3)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을 뿐,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 (4)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고 싶었던 도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5)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을 뿐 학생에게 새로운 질문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 (6)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며 되묻고 있으며,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라며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다.

(7) [A]에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사서가 확인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며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03 청자의 반응 분석

(1) ○ (2) ○ (3) × (4) ○ (5) ○ (6) × (7) ○

- (1)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요.’를 통해 청취자 1은 자신이 기대한 목적과 관련하여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청취자 2는 ‘자존감을 높여 주려면 ~ 벗어나게 해 주라는 거네요.’에서 방송 내용을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가능한 목표를 ~ 도움이 되겠군요.’에서 방송에서 안내되지 않은 방법과 그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 (3) 청취자 3은 직접 자신의 말에게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 (4) 청취자 4는 대상의 연령대가 사연 속 친구와 다를 때에도 방송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 (5) 청취자 5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건 좋은 방법이네요.’라며 방송에 제시된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친구들이 속상했을 텐데’라며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다.
- (6) 청취자 6은 방송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감정 헤아려 주기’, ‘장점 말해 주기’) 모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7) 청취자 7은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라며 방송에서 다른 내용(자존감이 낮은 경우)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4 말하기 방식 파악

(1) ○ (2) × (3) × (4) × (5) × (6) ○ (7) ×

- (1) 방송 진행자는 사연을 읽은 후 “□□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라며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라며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 (2) 사연 신청자가 알고 싶어 하는 해결책(‘장점 말해 주기’, ‘감정 헤아려 주기’)을 언급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음 방송을 예고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3) 마지막에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 (4) 심리 상담가라는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있을 뿐 사연과 관련된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